

# 계급과 수입 결정

정 대 연\*

目	次
I. 서 론	IV.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
II. 수입의 결정요인	V. 자료의 분석
III. 계급론적 수입결정론	VI. 요약 및 논의

## I. 서 론

사회문제로서의 불평등은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정대연, 1991). 선천적인 것을 물리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후천적인 것은 다시 도덕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리적 불평등은 사람들 간의 자연적 차이 예컨대 연령, 성별, 체력, 정신적 또는 심리적 차이 등과 같이 자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반면 도덕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은 비록 둘 모두 일종의 규약에 의해 서로 합의 또는 시인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외연적 강제보다는 개인의 내면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이 의식없이 마땅히 따르고 지키는 도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이라는 것은 강제에 기초하면서 삶의 과정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기회 접근의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물질의 분배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학은 계급이나 계층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간의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적 불평등의 원인 또는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의 한 측면으로서 수입의 문제를 특히 계급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II. 수입의 결정요인

수입, 즉 소득이란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개인소득과 기업이윤으로 나누어진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개인소득은 다시 자산에 대한 소득과 노동에 대한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적 관점이다. 전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틀이고(예컨대 Treiman and Roos, 1983). 후자는 전체 사회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하여 그 사회의 정치적 자율성 및 경제적 영역의 분화의 정도 등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틀이다(예컨대 Colbjornsen and Kalleberg, 1987). 그러나 사회구조적 요인인 제도적 장치가 미시적 수준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중재하며, 미시적 수준의 메커니즘이 제도적 장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고찰함으로써 이 두 차원의 관계를 연결지워 소득수준의 결정과정도 분석할 수 있다(예컨대 Levine, Sober and Wright, 198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입을 노동소득으로서의 임금에 국한시켜 수입의 결정과정을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하자 한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노동력 수급과 임금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1970년대 초부터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재관적인 임금결정 모델에 기초하여 임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임금결정 요인들은 대부분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고, 이외에 산업 부문, 노동조합 및 국가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들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임금의 차이를 일으키는 이러한 요인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개만을 선택적으로 분석하고, 요인들 간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분석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계급과 수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Koo and Hong(1980) 및 남춘호(1986)의 연구가 전부이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계급의 조작화 방법이 본 연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계급이 수입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고 있다.

### Ⅲ. 계급론적 수입결정론

노동소득으로서의 수입을 수치의 문제에만 국한시킨다면 수입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연구영역이다. 그러나 수입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 이처럼 수입은 사회학의 주요 관심영역이 되면서 비경제적 요인들이 강조되고, 그 가운데 특히 개인의 계급의 위치를 수입 결정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학에서 계급을 수입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것의 경험적 연구가 미국(예컨대 Wright and Perrone, 1977; Wright, 1979), 네덜란드(예컨대 Kerstholt and Luijckx, 1984), 스웨덴(예컨대 Winn, 1984), 노르웨이(예컨대 Colbjornsen and Kalleberg, 1987)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비록 계급의 조작화와 분석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정치적 규제의 정도 및 자본주의의 발달 정도에 관계없이 수입의 수준은 계급의 위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IV.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

계급론적 수입결정론은 개인의 수입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틀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한 이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수입은 계급의 위치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수입결정론이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이다.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적 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분절론(labour market segmentation theory)이다.

인적 자본론은 피고용인의 수입의 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자유경쟁 하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적으로 결정된다는 관점이다(예컨대 Fligstein and Fernandez, 1988). 이 관점에 의하면 피고용인의 교육수준, 직업경력, 기술 수준 등 인적 특성이 임금 격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고, 이 임금 격차는 피고용인의 한계 생산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각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임금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인적 자본론에 의하면 피고용인은 교육, 직업 훈련, 직업 경력 등과 같은 생산적 능력을 올림으로써 한계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수입도 증가될 수 있다(Becker, 1975 : 94-116 ; Fligstein and Fernandez, 1988).

반면 노동시장 분절론은 수입 불평등을 개인의 특성의 차이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는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론은 이중 경제론, 이중 노동시장론, 급진적 노동시장의 분절론 등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금결정 과정에 가해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을 강조한다. 즉 이 관점에 의하면 노동시장과 경제체제는 질적으로 다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부문으로 조각나 있으며 다른 부문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조건과 기회구조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 관점의 기본적인 주장들은 다음의 몇 가지 가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영화, 1990).

첫째 ; 임금, 부가급부, 고용안정성 등의 노동조건은 부문에 따라 다르다. 분절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의 위치는 인적 자본을 통제된 후에도 승진과 임금의 불평등을 의미있게 설명한다.  
둘째 ;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부문에 따라 다르다. 즉, 노동자의 인적 자본은 그들이 속해 있는 부문에 따라 달리 보상되며 노동에 필요한 노동자의 인적 특성 또한 부문에 따라 다르다.

셋째 ; 특정 사회집단 - 인종, 민족, 성 - 은 역사적으로 특정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집단 간의 수입 불평등의 상당한 정도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넷째 ; 부문간 노동자의 이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분절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의 위치는 거의 불변한다.

노동시장 분절론에서 분절의 부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이중경제론(dual economy)이 주장하는 관점으로서 중심 산업부문(core industrial sector)과 주변 산업부문(peripheral industrial sector)으로의 분절이고(예컨대 Bibb and Form, 1977, Beck, Horan and Tolbert, 1978 ; Tigges, 1988 ; Tolbert, Horan and Beck, 1980), 다른 하나는 일의 특성에 따른 일차 노동시장(primary labour market)과 이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ur market)으로의 분절이다(예컨대 Doeringer and Piore, 1971 ; Edwards, Reich and Gordon, 1975 ; Cain, 1976).

## V. 자료의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의 수준은 개인의 계급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인적 자본 및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적 자본,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계급의 위치에 따라 수입의 차이를 개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 사용된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묶어 하나의 틀 속에서 수입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수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그들의 내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수입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특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계급의 위치에서 기인하는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의 인과적 맥락도 알려준다.

### (1) 인적 자본별 수입의 수준

한국에서 인적 자본에 따른 수입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다.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임금결정 요인을 열거하면 성, 연령, 근속기간, 교육수준 등이다(송호근, 1989).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적 자본으로서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훈련 등 네 개의 변인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변인들은 인적 자본론에서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예컨대 Becker, 1975 : 94-116 ; Fligstein and Fernandez, 1988). 이 변인들 가운데 '직업훈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학교 교육을 제외하고 요구되는 별도의 훈련 기간으로서

네 개의 범주-요구되지 않는다, 1개월 미만, 1-5개월, 6개월 이상-로 구성시켰다. 이 네 개 변인별 수입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인적 자원별 수입의 수준

인적 자원 (사례수)	평균 월수입 (단위 : 1만원)
성*	
남자 (528)	65.27
여자 (242)	51.05
연령*	
20대 (397)	44.74
30대 (209)	69.43
40대 (97)	88.13
50대 이상 (67)	89.1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6)	53.51
고졸 (338)	56.98
대졸 (313)	70.34
직업훈련	
요구되지 않는다 (104)	45.51
1개월 미만 (75)	42.40
1-5개월 (146)	44.45
6개월 이상 (228)	44.19
총평균	60.81

\* : P=0.000

<표 1-1>에 의하면 전체 표본의 평균 월수입은 1988년 현재 60.81만원이다. 개인의 특성에 있어서 성, 연령 및 교육수준은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는 의미있는 요인이지만 직업훈련은 의미있는 요인이 아니다. 의미있는 요인 가운데 성의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가 수입이 많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수입이 많다.

그러나 <표 1-1>에서 연령과 교육수준과 같이 세 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된 변인의 경우 변량분석을 하면 어느 한 집단간이라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 선택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연령과 교육수준의 하위집단별 수입의 차이의 유의도

	연 령			교 육 수 준		
	20대	30대	40대		중졸 이하	고 졸
20대				중졸 이하		
30대	*			고졸		
40대	*	*		대졸	*	*
50대 이상	*	*	*			

\* : P=0.00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연령 집단간 수입의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이다. 그러나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와 대졸간, 그리고 고졸과 대졸 간 수입의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이지만 중졸 이하와 고졸 간에는 의미없는 차이이다.

〈표 1-1〉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는 인적 자본으로서 개인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은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적 자본론에서 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자를 열등한 임금협약 위치에 제한시키는 열등한 개인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김영화, 1990), 또한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숙련·기술이 낮아 자본에 대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조순경, 1990). 인적 자본론에 의하면(Rothschild, 1960 : 31-34)에 의하면 자유경쟁 하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높은 교육수준은 기술수준을 보유 가능하게 하고, 높은 기술수준은 한계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높은 교육수준이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연령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및 업무처리 능력도 높아지기에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 (2)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별 수입의 수준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수입의 차이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들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임금결정 요인을 열거하면 기업의 규모, 산업부문, 노동조합, 국가 등이다(송호근, 1989).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앞서 설명한 노동시장의 분절론에 따라 중심-주변 산업부문 또는 일차-이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이들의 개념적 의미에 기초하면 노동시장의 분절론은 그것이 중심-주변 산업부문으로 구분하든, 아니면 일차-이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든 노동시장의 양태를 분석하고 그 구조와 불평등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의 이중 구조화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상응하는 관계 또는 동일시하려는 시각에 대한 비판들도 있다(예컨대 Hodson and Kaufmann, 1982). 따라서 이 두 형태의 분절을 별도의 차원으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다(예컨대 김영화, 1990).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조사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일차-이차 노동시장의 분절만 다루기로 하겠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차 노동시장은 외부 시장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한 조직의 위계체계를 갖추고 있고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과 더불어 좋은 노동조건 및 승진의 기회,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조사에는 이 개념들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이 모두 포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변인들의 객관적 실체에 관한 자료도 아니고 단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을 4점 척도(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자료일 뿐이다. 그 자료는 아래와 같다.

- 노동조건 :     ○ 물리적 작업조건에 대한 만족도  
                   ○ 자신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율성  
                   ○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수준  
                   ○ 자신이 일해야 하는 근무시간의 수준
- 승진의 기회 : ○ 자신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수준
- 직업의 안정성 : ○ 자신의 직업과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전망이 밝다  
                   ○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안정성

위의 3가지 영역을 다시 두 차례 조작화 하였다. 첫번째 단계는 노동조건에 대한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치를 합하여 평균치(10.55)를 중심으로 '좋은 노동조건'과 '좋지 않은 노동조건'으로 구분하였고, 승진의 기회에 대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으로 양분하여 '좋은 승진기회'와 '좋지 않은 승진기회'로 구분하였고,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치를 합하여 평균치(5.35)를 중심으로 '안정적 직업'과 '불안정적 직업'으로 구분하였다. 이 조작화에 기초한 수입의 수준은 <표 2-1>과 같다.

<표 2-1>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에 따른 수입의 수준

산업부문의 구분 (사례수)	평균 월수입 (단위 : 1만원)
노동조건*	
좋다 (375)	65.35
좋지 않다 (282)	58.17
승진의 기회	
좋다 (230)	62.37
좋지 않다 (268)	61.72
직업의 안정성	
안정성이 있다 (271)	61.37
안정성이 없다 (446)	60.13

\* : P=0.05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노동분절론의 주장과는 달리 일차-이차 노동시장의 분절 가운데 노동조건 하나만 수입의 차이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뿐 승진의 기회와 직업의 안정성은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노동조건이 좋은 직장이 그렇지 않는 직장보다 수입이 높다.

두번째 단계의 조작화로서 〈표 2-1〉에서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에 있어서 모두 '좋다'라는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를 일차 노동시장 종사자로 하고, 모두 '나쁘다'라는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를 이차 노동시장 종사자로 하고, 이외의 응답자들은 일차와 이차 노동시장의 성격이 섞여있는 혼합 노동시장 종사자로 하였다. 결국 혼합 노동시장이란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 가운데 좋고 나쁨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개발 도상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적 미분화를 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범주라고 판단된다. 이 세 범주별 수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노동시장의 구조별 수입의 수준

노동시장의 구조 (사례수)	평균 월수입 (단위: 1만원)
이차 노동시장 (97)	56.55
혼합 노동시장 (334)	61.27
일차 노동시장 (42)	68.81

\* :  $P=0.05$

〈표 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수입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일차 노동시장의 종사자가 수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혼합 노동시장 종사자이고, 이차 노동시장의 종사자가 수입이 가장 적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건, 승진의 기회 및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한정된 변인, 그것도 객관적 실체가 아닌 노동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만 〈표 2-2〉의 결과는 노동시장 분절론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계급별 수입의 수준

앞에서 살펴본 계급론적 수입결정론에 의하면 계급간에는 수입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Wright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자산, 기술자산 및 물질적 자산의 차등분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Goldthorpe는 그 차이를 계급의 위치의 결과라기보다는 고용인이 고안한 도덕적 수단의 결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급 범주 - 뿌띠브르조아, 신중간계급, 모순계급 1, 모순계급 2, 육체노동자 - 에 따른 수입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계급별 수입의 수준

계급의 범주 (사례수)	평균 월수입 (단위 : 1만원)
쁘띠브르쥬아 (206)	95.90
신중간계급 (60)	79.75
모순계급 1 (236)	53.09
모순계급 2 (150)	39.41
육체노동자 (118)	34.00
총평균 (770)	60.81

\* : P=0.000

<표 3-1>에 의하면 계급에 따라 수입의 수준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쁘띠브르쥬아가 수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중간계급, 모순계급 1, 육체노동자의 순으로 수입이 높고, 모순계급 2가 수입이 가장 낮다. Wright(1985 : 86)가 주장한 바와 같이 쁘띠브르쥬아가 항상 착취를 당하는 위치에 있는 신중간계급, 모순계급 1, 모순계급 2 및 육체노동자들보다 수입이 높다. 계급간 이러한 수입의 차이를 다시 설편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계급간 수입의 차이의 유의도

계급 범주 \ 계급 범주	쁘 띠 브르쥬아	신중간계급	모순계급 1	모순계급 2	노동자계급 하 층
쁘띠브르쥬아			*	*	*
신중간계급			*	*	*
모순계급 1				*	*
모순계급 2					
육체노동자					

\* : P=0.000

<표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쁘띠브르쥬아 및 신중간계급이 모순계급 1, 모순계급 2 및 육체노동자와 보이고 있는 수입의 차이는 의미있는 차이이고, 모순계급 1이 모순계급 2 및 육체노동자와 보이고 있는 수입의 차이도 의미있는 차이이다. 그러나 <표 3-1>에 있는 나머지 계급들간의 차이는 의미없는 차이이다.

(4) 수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내적 메커니즘

마지막으로 수입 결정의 총체적인 틀로서 계급의 위치,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수입의 수준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하고, 개인의 인적 자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제1 매개변인, 그리고 계급의 위치를 제2 매개변인으로 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이것은 수입 결정에 미치는 인적 자본,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계급의 위치 등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이들의 내적 메커니즘을 밝혀줌으로써 수입의 차이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특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계급의 위치에서 기인하는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의 인과적 맥락도 알려준다.

이 분석을 위해 <표 1-1>에 있는 인적 자본의 변인들 가운데 수입의 차이를 일으키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밝혀진 성, 연령 및 교육수준을 사용하였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서는 <표 2-2>에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 변인들 가운데 성, 노동시장의 구조 및 계급의 위치는 모조변인으로 처리하였다. 경로분석의 결과 0.05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성, 연령, 노동시장의 구조 및 계급의 위치가 수입의 결정에 대해 갖는 중다상관관계수는 0.578이다. 즉 이 요인들이 수입 결정에 대해 갖는 총설명력은 33.4%로서 나머지 66.6%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수입의 수준이 결정된다.

둘째; 인적 자본으로서 성, 연령 및 교육수준 가운데 교육수준만이 진출할 노동시장의 유형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만 성이나 연령은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에 종사하게 되느냐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계급의 위치는 인적 자본,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다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① 성은 육체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급들의 형성에 직접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 성은 특히 모순계급의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뼈띠브르조아이고, 신중간계급에 가장 낮은 영향을 준다. 특히 뼈띠브르조아와 모순계급 2의 결정에는 여자라는 사실이 의미있게 영향을 주고, 반대로 신중간계급과 모순계급 1의 결정에는 남자라는 사실이 의미있게 영향을 준다.

② 연령은 모든 계급의 형성에 직접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의 정도를 보면 뼈띠브르조아의 위치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신중간계급, 육체노동자, 모순계급의 순서로 강한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의 방향을 보면 뼈띠브르조아와 신중간계급의 형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모순계급과 육체노동자의 형성은 연령이 적을수록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③ 교육수준은 뼈띠브르조아를 제외한 나머지 계급의 위치 결정에 모두 직접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의 정도를 보면 육체노동자의 위치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모순계급 1, 신중간계급, 모순계급 2의 순서로 강한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의 방향을 보면 신중간계급과 모순계급 1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육체노동자와 모순계급 2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일차 노동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순계급 2의 위치 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

④ 일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모순계급 2의 위치 결정에 負的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이차 노동시장의 종사자는 육체노동자의 위치 결정에 正的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 특히 일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교육수준의 영향을 받아 간접적으로 모순계급 2의 위치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혼합 노동시장 종사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계급의 위치 결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계급 위치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뺨띠브르조아의 형성은 성, 특히 여자라는 사실만이 의미있는 요인이고 연령과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신중간계급의 형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일차 노동시장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교육수준은 일차 노동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신중간계급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 요인들 가운데 신중간계급의 형성은 교육수준에 의해 가장 강한 영향을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연령과 성이고, 일차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

③ 모순계급 1의 형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등 인적 자본에 의해서만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다. 이 가운데 교육수준이 모순계급 1의 형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연령과 성이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연령은 적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라는 사실이 모순계급 1의 형성에 작용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모순계급 1의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모순계급 2의 형성도 모순계급 1과 마찬가지로 성, 연령, 교육수준 등 인적 자본에 의해서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모순계급 1과는 달리 모순계급 2의 형성은 일차 노동시장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교육수준으로부터 가장 강한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성과 연령이고, 일차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가장 약하다. 이 요인은 모두 負的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라는 사실,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일차 노동시장의 성격이 약할수록 모순계급 2의 형성에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⑤ 육체노동자의 형성은 연령, 교육수준 및 이차 노동시장의 성격에 의해서만 의미있는 영향을 받는다. 이 가운데 교육수준으로부터 가장 강한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연령과 이차 노동시장이다. 이들의 영향의 방향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이차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격이 강할수록 육체노동자의 계급 위치가 더 강하게 형성된다.

다섯째; 수입의 수준은 인적 자본으로부터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계급의 위치로부터도

직접 영향을 받고, 인적 자본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계급의 위치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 구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성, 연령, 교육수준 등 인적 자본은 수입의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 가운데 연령의 영향이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교육수준이고, 남자나 여자나 라는 성의 영향이 가장 적다.

②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수입의 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계급의 위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 가운데도 일차 노동시장 종사자들이 신중간계급의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면서 신중간계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이차 또는 혼합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간접적으로도 수입의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계급의 범주들 가운데 수입의 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뿌띠브르쥬아와 신중간계급 뿐이다. 즉 모순계급과 육체노동자는 그들의 계급적 위치보다는 그들의 인적 자본 및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수입의 수준이 더욱 의미있게 결정된다. 계급의 위치가 수입의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뿌띠브르쥬아와 신중간계급 가운데 뿌띠브르쥬아가 수입 수준의 결정에 더욱 강한 영향을 준다.

④ 수입 수준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보면 성 → 신중간계급 → 수입의 수준, 연령 → 뿌띠브르쥬아 → 수입의 수준, 연령 → 신중간계급 → 수입의 수준, 교육수준 → 신중간계급 → 수입의 수준 등 네 가지 맥락이다.

⑤ 마지막으로 수입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의미있는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뿌띠브르쥬아 라는 계급적 위치가 수입 수준의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연령, 교육수준, 성의 순서이다.

## Ⅵ. 요약 및 논의

사회학은 계급이나 계층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간의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적 불평등의 원인 또는 결과를 다루어 왔다. 수입은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사회학에서 수입은 계층이나 계급의 위치를 결정지우는 원인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계급론자들은 수입을 계급적 위치의 결과로 다루기도 한다. 이처럼 수입을 개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면 수입의 수준은 단지 계급적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 때문에 사회학에서 수입은 크게 계급론적 수입 결정론과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계급론적 수입결정론은 다시 E. O. Wright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 J. H. Goldthorpe로 대표되는 신베버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노동시장론적 수입결정론은 다시 인적 자본론과 노동시장 분절론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각 개인의 계급위치, 인적 자본 및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수입의 차이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수입, 계급의 위치, 인적 자본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하나의 틀로 묶어 수입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인적 자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제1 매개변인으로 하고, 계급의 위치를 제2 매개변인으로 하여 수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이 요인들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입의 수준은 각자의 계급적 위치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특히 일차-이차 노동시장의 분절은 계급의 위치 결정에는 특히 신중간계급과 모순계급의 형성에는 의미있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수입 결정에 직접적으로 의미있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계급의 위치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는 수입의 결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입의 결정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인적 자본이 계급의 위치나 그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에서 조작화된 계급의 범주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한정된 것이기에 이 결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범주를 여러 계급 모델에 따라 다양화시킨 수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임금결정에 관한 여러 유형의 연구 가운데 특히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의 경험적 타당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통합모형을 남녀로 나누어서 다시 분석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 결과는 인적 자본, 노동시장의 분절 및 계급의 위치에 따른 통합모델에서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그들의 인과적 메커니즘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남춘호

1986. "계급 및 노동시장 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조직부문 피고용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송호근

1989. "한국노동시장의 구조변화." 『한국사회학』23(여름호) : 1-27

정대연

1991. "한국사회의 분배적 불평등." 한국사회학회(편). 『현대 한국사회 문제론』. 서울: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18-45

조순경

1990. "한국 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 송호근(편). 『노동과 불평등』. 서울: 나남출판사. 225-273

Becker, E. M., P. M. Horan, and C. M. Tolbert

1988. "Stratification in a Dual Economy: A Sectoral Model of Earnings Determi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 704-720.

Becker, G. S.

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2nd ed.).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ibb, R. and W. H. Form

1977. "The Effect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Sex - Stratification in Wages in Blue - Collar Markets." *Social Forces* 55 : 974-996.

Cain, G. G.

1976. "The Challenge of Segmented Labor Market Theories to Orthodox Theory: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 : 1215-1257.

Colbjornsen, T. and A. L. Kalleberg

1987. "Spillover, Standardization and Stratification: Earnings Deter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Norway."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held in Chicago (August 1987).

Doeringer, P. and M. J. Piore

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ss: Health Lexington.

- Edwards, R. C., M. Reich, and D. M. Gordon (eds.)  
 1975. *Labor Market Segmentation*, Lexington, Mass : Health Lexington.
- Fligstein, N. and R. M. Fernandez  
 1988. "Worker Power, Firm Power, and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s." *Sociological Quarterly* 29 : 5-28.
- Goldthorpe, J. H.  
 1980.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Oxford : Clarendon Press.  
 1982. "On the Service Class, Its Formation and Future.", Pp. 162-185 in *Social Class and the Division of Labour : Essays in Honour of Ilya Neustadt*, edited by A. Giddens and G. Mackenzi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son, R. and R. L. Kaufmann  
 1982. "Economic Dualism : A Critical Revie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 727-739.
- Kalleberg, A. L., M. Wallace, and R. P. Althauser  
 1981. "Economic Segmentation, Worker Power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 651-682.
- Kerstholt, F. and L. R. Luijckx  
 1984. "Class, Status and Income Inequality." *Netherlands Journal of Sociology* 20 : 134-149.
- Koo, H. G. and D. S. Hong  
 1980. "Class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 610-626.
- Levine, A., E. Sober, and E. O. Wright  
 1987. "Marxism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New Left Review* 162 : 667-684.
- Parkin, F.  
 1979. *Marxism and Class Theory : A Bourgeois Critique*. London : Tavistock.
- Rothschild, K. W.  
 1960. *The Theory of Wages*. Oxford : Basil Blackwell.
- Tigges, L. M.  
 1988. "Age, Earnings and Change within the Dual Economy." *Social Forces* 66 : 676-698.

Tolbert, C. M., P. M. Horan, and E. M. Beck

1980. "The Structure of Economic Segmentation: A Dual Economy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 1095-1116.

Treiman, D. J. and P. A. Roos

1983. "Sex and Earnings in Industrial Society: A Nine-Nation Comparis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612-650.

Winn, S. V. Z.

1984. "Social Class and Income Returns to Education in Sweden: A Research Note." *Social Forces* 62: 1026-1034.

Wright, O. E.

1979.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1985. *Classes*. London: New Left Books.  
1988. "Exploitation, Identity, and Class Structure: A Reply to My Critics." *Critical Sociology* 15: 91-110.

Wright, O. E. and L. Perrone

1977. "Marxist Class Categories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32-55.